+

광주 소부장기업 프리모, 기아 글로벌 PBV 협력사 선정

(차량기반확장플랫폼)

광주·전북기술융합교통약자용부품개발 편의성제고·비상상황대비기술인정받아

광주 미래차 소부장 (소재·부품·장비) 특화단 지 참여 기업이 '기아 글로벌 확장 플랫폼 협력 기업'으로 선정돼 세계로 진출한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미래차 소부장 (소재·부품·장비) 참여 기업인 ㈜프리모가 기아의 차량기반 확장 플랫폼(PBV) 분야 협력기업으로 선정돼 '2025 글로벌 PBV 컨버전 파트너스 데이'에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최근 서울에서 열린 행사는 국내·외 주요 컨버 전사(특장기업)와 함께 '글로벌 PBV 컨버전 파 트너십 사업'을 본격 소개하는 자리였다.

행사는 1부 테크니컬 세션에서 기아 PBV의 핵심 전략이 공개됐고 이후 기아와 ㈜프리모 등 국내 PBV 컨버전사들의 파트너십 인증패 수여 식을 진행했다.

앞서 기아는 지난 10월 '차량 그 이상의 플랫폼'이라는 PBV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협력기



광주 미래차 소부장(소재·부품·장비)참여 기업인 ㈜프리모가 기아의 차량 기반 확장 플랫폼(PBV) 분야 협력 기업으로 선정돼 최근 '2025 글로벌 PBV 컨버전 파트너스 데이'에서 파트 너십을 체결했다.

업을 선정했다.

이번에 기아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프리모 는 차량용 전장부품(자동차 조명 장치 등) 및 특

장차량을 제작(하이루프·시트 포함)하는 전문 기업으로 기존 기술에 새로운 기술을 융합하려 는 노력을 인정받아 협력기업으로 선정되는 성

과를 이뤘다.

그동안 광주시, 전북특별자치도와 지난 3월부터 10여 차례의 협의를 진행해 소부장 특화단지

공동 협력 방안을 검토했다. 그 결과, 광주의 이종접합기술 기반 차체·섀시 기술과 전북의 강도·경량화 탄소 기술을 융합해 ㈜프리모의 PBV에 적용할 예정이다.

㈜프리모는 이 융합기술로 교통약자용 차량의 승·하차 편의성을 높이고 화재 등 비상 상황때 안전 대피 시간을 확보하는 기술까지 기아 PBV 모델인 PV5에 적용하는 사업계획을 신청해이번 협력기업 선정으로까지 이어졌다.

특히 기아의 현지 실사 과정에서 광주시가 직접 참석해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힌 점이 관계 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성훈㈜프리모 대표이사는 "어려운 시기에 기아 글로벌 협력기업으로 선정돼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지난 3월부터 적극 지원해 준 광주시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동현 미래차산업과장은 "광주 소부장기업 인 프리모가 기아 협력기업으로 선정된 것은 매 우 뜻 깊은 성과"라며 "소부장 특화단지 활성화 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변은진기자

'안전 전남' 실현…道안전관리자문단 구성

14개 분야 전문가 방재·환경 등 확대 시설물·축제 등 생활속 안전자문 강화

전남도가 '전남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1일부터 2027년 11월30일까지 활동할 안전관리자문단 50명을 새롭게 구성하고 시설물·축제·다중운집시설 등 생활 속 안전 강화에 나선다.

전남도 안전관리자문단은 그동안 건축, 토목, 널전기, 가스, 승강기, 기계설비 등 다양한 분야 전 대성 문가가 함께 참여해 운영됐다. 이번 재편을 통 청해 방재안전, 환경, 어린이놀이시설 분야를 새 의로 포함해 총 14개 분야로 자문 체계를 확대·강 다. 화했다.

자문단은 한국전기안전공사·가스안전공사· 승강기안전공단 등 공사·공단 전문가 12명과 건축·토목·기계·화공·안전 분야 교수와 기술사 등 민간전문가 38명 등 총 50명으로 구성됐다.

각 분야 전문성은 물론, 풍부한 경륜과 실무 경험을 갖춰 안전 관리 자문에 폭넓게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관련 조례에 따라 ▲안전관리 계획 및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자문 ▲건축물·교량·터 널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 대책과 등급 조정 ▲주민 요청 시설의 현장 안전 점검과 상담 ▲안전 점검의 날등 관련 행사 상담과 점검 등 업무를 한다.

이밖에도설·추석등취약시기안전점검,지

역 축제와 다중운집행사 안전 관리 등 다양한 안전 관련 자문 활동을 지원한다.

자문단 재구성에서는 전문경력과 활동 참여 도를 종합 검토해 기존 위원 29명을 재위촉하 고, 분야 다양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신규 전 문가 21명을 위촉했다.

신규 인원은 토목 4명, 건축 2명, 건설안전 2명, 방재안전 1명, 화공안전 1명, 기계설비 2명, 환경 1명, 어린이놀이시설 2명, 전기 4명, 승강기 2명 등이다.

이원형 사회재난과장은 "안전관리자문단은 도민 안전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다"며 "전문 분야 확대와 신규 인력 보강을 통 해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전남 구현'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재정기자



광주관광공사 '비짓광주' SNS 어워즈 2관왕

현장 중심 콘텐츠 발굴 등 성과

광주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공식 관광 채널 '비 짓광주 (VisitGwangju) '가 국내 주요 디지털 콘 텐츠 시상식에서 연이어 수상하며 대한민국 대 표 공공 관광 SNS로 자리매김했다.

1일 광주관광공사에 따르면 비짓광주는 최근 '제11회 올해의 SNS'에서 올해의 블로그 공공 기관(공기업) 부문 최우수상을, '제3회 한국공 공브랜드대상'에서 공기업 디지털마케팅 부문 최우수상(사진)을 수상했다.

특히 한국공공브랜드대상 디지털 마케팅 부 문에서는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지속 적인 성장성·우수성을 입증했다.

이번 수상은 2025 광주 방문의 해를 맞아 온라

인 홍보를 대폭 강화한 운영 전략과 성과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올해 공격적인 디지털 마케팅 전략으로 인스 타그램 게시물 역대 최다 조회수 26만회 달성, 전년 대비 약 6천명 구독자 증가로 전체 채널 구 독자 7만명 돌파, 인스타그램 이용자 상호 작용 100% 상승 등의 성과를 거뒀다.

광주관광공사는 올해 비짓광주 기자단 규모를 확대하고 SNS 콘텐츠 크리에이터와의 협업을 강화하는 등 현장 중심의 생생한 콘텐츠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데 집중했다.

그 결과, 광주의 숨은 명소와 최신 관광 트렌 드를 실시간으로 포착한 콘텐츠가 시민과 관광 객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변은진 기자

광주시, 겨울철 건설공사장 민·관 합동 안전점검

광주시는 오는 26일까지 동절기 대비 지역 건설공사장 109개소에 대해 민·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공사 현장의 취약요인을 다. 사전에 확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선 수 특

광주시와 자치구, 국토안전관리원, 민간전 문가 등이 참여하며 점검 대상은 굴착 등 겨울 철 취약 공정이 진행 중인 109개 건설 현장이 다.

주요 점검 사항은 ▲동절기 대비 안전 대책 수립 여부 ▲굴착면 지반 안정성 확보 여부 ▲ 폭설·강풍 대비 가설구조물 안전 조치 여부 ▲ 결빙·미끄럼 위험 구간의 안전시설 설치 여부 ▲비상 제설자재 확보 및 장비·자재관리 상태 등 현장 안전관리 체계 운영 실태 등이다.

점검 후 확인된 사항 중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경미한 위험 요인은 현장에서 바로 시정하도록 하고 구조적 보강 등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위험 요소가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할 방침이다. /변은진기자



+